

지역 소식통

김제시, 지역개발사업 성공 추진 리더 워크숍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개발사업 리더 50여명과 두차례 워크숍을 통해 사업 완료지구 운영 활성화와 성공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일과 앞서 지난 2월 22일에도 실시했다.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용석)에서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완공 후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공덕면 리더들과 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인 각 지역 리더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무안군과 목포시, 무주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구들을 둘러보고 각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덕면 리더들은 무안군 해제면과 환경면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공덕 두루누리 활력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치료실 운영프로그램 발굴, 돌봄실, 프로그램별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찾아가는 전복특별자치도 수산시책 설명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김제를 방문해 올해 해양수산 주요시책과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순회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제시청 3층 회의실에서 11일 오후 2시에 열린 행사에는 도내 어촌계장 및 내수면 어업 종사자, 어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내수면 어업을 포함한 각종 주요 현안과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전복특자도 해양수산분야 주요성과와 '24년도 주요업무 소개 및 전복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수산업 특례로 반영된 5개의 특례에 대한 어업인 의견과 어업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도정 주요시책과 관련해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어업인이 안정적인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수소 산업 '탄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완주 수소산업 전폭 지지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 협력

완주군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손잡고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유치에 나섰다.

KTR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시험·인증·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 매년 47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3만 개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KTR의 전폭적인 지지로 완주군의 수소 산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1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KTR 본원을 방문해 김현철 원장을 만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예산 공동 대응 방안,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인증지원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완주군이 추진 중인 수소관련 인프라 사업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소개하고, 올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준비 중인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공동 대응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외에도 청정수소 인증제, 수소 기업지원 협력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수소특화 국가산업 투자협약(MOU) 체결과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현철 원장은 "KTR은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술서비스 기관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폭넓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완주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수소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저장용기 제조기업인 일진하이슬루스, 플라스틱 옴니업이 소재해 있다"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 ESS안전성 평가센터까지 보유한 완주군은 우리나라 최대 수소산업 중심지로 성장 중이고, KTR과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수소산업을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5월 전북도-KTR과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실증화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11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KTR 본원을 방문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 연료전지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김제시는 김제 믿음병원과 11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건강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믿음병원,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업무협약

무료 건강상담 등 의료 서비스 제공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 믿음병원(병원장 조양동)과 11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건강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김제시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믿음병원은 김제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건강검진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성소속증이 의심되는 아동에게는 조기 성조

숙증 검사지원을 년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기별 무료 건강상담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믿음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주노동자, 노인, 취약계층, 노인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2017년도부터는 다문화여성, 지역아동센터아동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등 관내 최적의 의료환경 조성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앞장서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관내 아동들의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전북특별법 '특례참여제안방' 개설

특례 아이디어 접수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이후 더 특별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맞이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이날부터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홈페이지에 '특례참여 제안방'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북특별법과 특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추

가 발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특례참여 제안방'을 개설, 공지 및 안내사항 게시와 의견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례란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규정 또는 법령으로, 특례를 통해 기존보다 확대된 권한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2월 28일에 전북특별법에 담긴 131개 특례가 통과됐으며, 전북자치도는 인프라·인력·제도라는 3대 기반을 바탕으로 농생명·문화관광

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5대 핵심 산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지역의 여러 사업 및 발전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김제시민의 소중한 관심과 아이디어를 모아 해당부서 검토 후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자살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기관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1일 행정안전부의 '2023 전국지역 안전지수 공표'에서 자살분야 지역안전지수가 2등급으로 지난해에 비해 3등급 상승해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의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

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 안전도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해 공표하는 것으로 낮은 등급일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제는 자살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중요한 지표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으로 자살자 수를 36명에서 17명으로 전년 대비 52.8% 감축에 성공해 5등급을 유지하던 자살 지역안전지수를 2등급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시는 자살률 감축을 위해 전북도 내 최초로 24시간 응급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여성행복도시 만들기 박차

여성인재 발탁·문화사업 신규 지원

완주군이 행복한 여성, 행복한 완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명은 삼례시청에서 기념일을 홍보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지위 향상의 날로 '평(생존권)'과 '잠(참정권)'가 그 의미를 상징한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는 잠미꽃을 나눠주며 여성 권익증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매월 8일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시는 자살률 감축을 위해 전북도 내 최초로 24시간 응급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화 확산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등의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9세~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638명에게 연 15만 원을 지원해 보건 위생용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군 조직내부에서도 양성평등이 펼쳐지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취임 이후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여성 공무원을 승진 시키거나 요직으로 발탁해 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완주군 6급 이상 4급까지의 간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45.9%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11.2%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채미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여성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